

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 러쉬

남원시, 설치 당위성·필요성 적극 피력

지붕없는 박물관, 한류의 중심지 남원에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남원을 비롯한 전북권역 가야 고분군 조사, 연구를 통해 고대 역사 규명은 물론 영남지역에 비해 저조했던 호남지역 가야유적을 중심으로 학술조사,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남원시는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최근 개소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방문을 통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의 남원시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

남쪽 지방의 근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남원(南原)은 지리적 요충지로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이유로, 남원은 국보,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38점,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81점 등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지정문화재를 갖고 있다.

남원은 역사의 변화기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다.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신라와 백제, 가야의 치열한 영토전쟁, 해양세력을 막는 최후의 방어진로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조선말 등 학혁명과 일제 식민시대의 독립운동, 민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의 산실도 남원이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최근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에 대해 호남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작 지정을 예고해 운봉가야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운봉가야는 1500여 년 전 운봉고원 일대에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운봉가야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가야왕국 중 유일하게 철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유적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남원은 또 신라 신문왕 5년(685)에 소경을 두었다. 당시 남원지역은 행정적, 문화적으로 호남문화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원이라는 지명은 신라 소경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원은 또 문화예술의 보고였다. 명실상부한 한류의 본고장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소설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만복사저포기, 최척

전 등의 배경지이며, 동편제 판소리 발상지이다. 근대문화의 백미로 꼽히는 혼불의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남원은 지리적으로도 지리산과 함께 삼진강 권역을 끼고 있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접경하고 있는 경상남도, 전라남도도 비롯 영호남을 아우르는 연구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지리산, 삼진강 권역을 포함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는 반드시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준비하고 있다.

남원시는 구 남원읍 부지를 비롯한 신축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광주, 부여, 청원, 나주, 충주, 강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분야의 국립시설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를 비롯한 익산시, 전주 등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설치 운영지역이 선정,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도시경쟁력 강화 발판다지기 탄력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임실군이 낡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경관조성,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마련하는 등 아름다운 임실군을 만들어가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주거환경 노후화로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된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3월 군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심의자문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와 주민·행정기관 간 중

간 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은 도시재생사업지구와 마을환경정비사업지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추가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군은 또한 차별화된 도시 경관 디자인을 위해 '임실군 경관조례'와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계획, 재정지원, 경관추진협의체와 경관위원회, 경관협정, 경관심의실무협의회 관련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서는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진흥위원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등의 내용과 각종 공공 공간, 시설물, 매체에 대한 심의와 자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완료 전이나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도시경관 개선 및 디자인 품질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군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편의를 위한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미래임실의 경쟁력은 낙후되고 쇠퇴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며 "관련 조례들을 잇따라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은행 순창지점 김봉량 지점장은 이영태 시외지역금융센터장과 함께 선물꾸러미 100상자를 황숙주 군수에게 기탁하고 있다.

설명절 앞 온정의 손길 '붐몰'

순창군, 어려운 이웃에 성금·물품 기탁 이어져

지난 9일 순창군에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성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행 순창지점 김봉량 지점장은 이영태 시외지역금융센터장과 함께 김,당면,식용유,밀가루 등 생필품으로 채워진 선물꾸러미 100상자를 황숙주 군수에게 기탁했다.

순창군 한돈협회 정은호회장과 회원들은 흑돼지고기 350kg(500만

원상당)을 기탁하며 정성을 보냈다.

새농민회 임형락 회장 및 회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회비 150만원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황숙주 군수에게 기탁했다.

순창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자들의 온정이 잘 전달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연휴기간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총력

임실군 15일~18일 24시간

민생안전 종합대책 운영

귀성객 불편사항 최소화

임실군이 설 연휴기간 주민들과 귀성객을 위한 '설명절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하는 등 최상의 맞춤형정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군은 설명절 연휴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24시간 종합상황반과 재난재해대책반운영 및 비상요방역상황반, 교통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상·하수도비상 대책반등 모두 7개 반을 운영한다.

각 분야별 사전점검과 비상연락체계 확립으로 주민과 귀성객이 연휴기간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또한 지난 해 말부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 진행해

왔으며, 설명절 기간 지정기탁금과 지정기탁물을 관내 어려운 세대와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소외되지 않고 정이 넘치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연휴기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요일별 민간 병·의원 운영과 공공의료기관의 24시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도 수립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우리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점검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설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서 올해 농업 기술 보급사업 확정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9일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18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99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남원시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관, 단체간 업무협력을 물론 지역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시범사업 선정과 지역농업발전에 관련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여론 수렴의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번 2018년도 정기회는 남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에 의거 드론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사업, ICT융합 기술 활용 딸기육묘기술 사업 및 농산물가공사업 등 5개 농업기술사업에 대한 대상자 심의, 선정 및 19년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수립, 기타 농업발전을 위한 토의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31일(40일간)까지 읍면동 전 마을에 시범사업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공개적으로 홍보했으며 1월 31일까지 담당분야별 전문지도사와 읍면 농민상담소장이 현지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기준 심사표에 의거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술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분야별 전문지도사의 영농설계와 기술 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들 농가는 농업기술 혁신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경영인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귀성객맞이 대청소 실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8일 'Clean 남원 청결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23개 읍면동 마을주민, 노인사회활동 참여자를 비롯하여 53개소 유관단체,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남원시 관문인 주요 진입도로변과 각 읍면동 마을 안길 대청소, 무단방치 쓰레기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기타 도시 미관 저해 요인에 대하여 대대적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남원시는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등 취약지 청결유지를 위해 연중 매일(주말 포함)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상화실을 설치하여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 처리 기동반 운영을 통한 생활 쓰레기 긴급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